

## 『누구나 마을 아카이브』

이영남, 이현정, 이경래, 한동민, 강원재, 윤충로, 김시동,  
최서영 지음, 더 페이퍼, 2018

이성재\*

기초자치단체 기록연구사로 일하면서 지역의 마을기록에 관심은 있었지만 업무를 내지 못하던 차에 좋은 책을 만났다.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대상과 목적은 비교적 명료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공기록물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또는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자료를 관리대상으로, 투명한 행정구현과 효율적 활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는 조직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기계적 프로세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표준에 의해 수행되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는 생산과 이관, 평가, 폐기, 보존처리 등 월별·연도별 계획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집니다. 기록관 서고에 반듯이 줄서있는 기록물은 공적행위의 성과이자 증거물로 보존되어집니다.

반면 마을 또는 공동체의 기록과 기록관리는 객관적이며 물리적 실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정의하기도 어렵고, 표준에 의해 관리되는 공공기록과 달리 체계적 관리방법을 규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래 “마을기록”은 기록활동가의 기록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 공동체회복운동의 일환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 개념의 모호함을 설명해주

---

\* 원주시청 기록연구사.

는 무언가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누구나 마을아카이브”는 마을기록 개념의 모호함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록전문가들의 따뜻한 시선과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고 선명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수원의 골목잡지 “사이다”는 2018년 시민기록자 양성을 위해 ‘마을기록학교’를 열었고, “누구나 마을아카이브”는 이 프로그램의 강의 여덟 편을 묶어 출판한 책입니다.

우선 이 책은 강의내용을 녹음하고 그 내용을 말로 풀어쓴 글이어서 읽기에 편안합니다. 또한 구술채록의 특성을 반영하여 강의실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성껏 편집하였습니다. 마을기록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에게나 공공기록관리 영역에서 일하는 기록연구사에게도 마을기록뿐만 아니라 기록의 의미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기에 유용한 텍스트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장 “마을기록의 이해”는 공동체 기록의 역할과 특성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록과 민주주의, 갈등을 대면하는 기록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아가 마을기록자가 기록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2장 “공동체 아카이빙을 시작하며”에서는 공동체아카이빙을 수행하는 마을기록자로 활동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기록의 의미와 가치기준, 공동체아카이빙의 지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을기록활동가의 활동은 그 목표에 따라, 어떤 성격을 가지고 마을기록자가 되느냐에 따라 기록의 선별·획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아카이빙이라는 것은 불확실하고, 독특하며, 가치갈등적인 것이어서 수행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고민하는 마을기록활동가는 기록의 의미와 가치기준, 지향점을 확실히 정립해야 하며 기록활동 과정에서의 공감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4.16가족협의회, 월가점령운동, 부흥주

택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기록의 범위와 가치의 확장,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3강 “도시재생과 공동체아카이브”는 공동체아카이브의 동력을 도시개발로 해체된 공동체재건을 위한 도시재생프로그램에서 찾고자 합니다. 해외의 다양한 민관협치 모델들을 소개하고 소통과 마을아키비스트양성, 주류문화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한국형 모델을 제안합니다.

4강 “수원의 지역적 특징과 역사·문화적 특성”에서는 마을아카이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역사이며, 지역시민 스스로의 기록이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기록의 지속성을 보장해 줄 수 있음을, 5강 “다시세운 프로젝트”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인 세운상가의 기록과정을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강 “구술사란 무엇인가”에서는 요즘 마을기록에서 각광받고 있는 구술의 특징과 중요성을 여러 나라의 구술 발전과정과 사례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술은 주류역사 또는 주류기록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개인 기록들을 담을 수 있는 도구이며 소통의 도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7강 “지역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은 민간 기록의 수집 필요성과 효과적 활용방안을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의 지역기록 작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록작업의 어려움에서부터 효과적 기록화의 다양한 방법, 기록의 활용, 다양한 기록활동들을 통해 지역기록의 중요함과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강 “골목잡지 사이다 마을을 기록하다”에서는 소소한 사람과 마을의 숨은 얘기들을 잡지의 형태로 발행하여 지역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골목잡지 사이다의 지역기억과 기록화 사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누구나 마을아카이브”라는 제목을 보고선 그 내용을 마을기록가를 위한 기능적 입문서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공공기록과 비교하여 마을기록은 그 대상이 무엇인지, 주체는 누구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할 것인지,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등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책을

읽은 후 적어도 공공기관의 기록연구사로서 가졌던 마을기록에 대한 모호함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 기록을 대상화하고 물리적 실체로만 생각했었던 것은 아닐까요. 효율과 기능을 강조하는 공공기관에서 기록은 손에 잡혀야 하고 보존서고에 반듯이 정렬되어 보존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마을기록은 당연히 모호하고 불분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물 안 세상이 전부인 양 기고만장했던 개구리가 아니었나 반성하며, “누구나 마을아카이브”를 통해 우물 밖의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